

왕정훈, 유러피언 투어 2주 연속 우승 도전

내일부터 열리는 '오메가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출사표... '골프황제' 우즈와 만나

유러피언(EPGA) 투어 '카타르 카타르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며 통산 3승째를 거둔 왕정훈(22)이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왕정훈은 내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의 에미리트골프클럽(파72·7328야드)에서 열리는 '오메가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총상금 265만 달러)에 출전한다.

왕정훈은 지난 주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대회에서 연장 승부 끝에 우승을 차지하며 EPGA 투어 시즌 첫승이자 통산 3승째를 거뒀다.

이 우승으로 60위에 머물던 세계랭킹을 39위까지 대폭 끌어 올렸다.

한국 선수 가운데 안병훈(26·47위)을 제치고 가장 높은 곳에 이름을 올렸다.

'로드 투 두바이' 랭킹에서는 '아부다비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토미 플릿우드(잉글랜드)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2승과 함께 신인왕을 차지한 왕정훈은 시즌 초반 우승을 추가하며 존재감을 보였다.

왕정훈이 이 대회를 기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어릴적 자신의 우상이었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을 통해 17개월 만에 정규 대회에 복귀한 우즈는 2주 연속 대회에 출전한다. 주위의 기대와 달리 컷 탈락하며 자존심을 구긴 우즈는 두바이 클래식에서 명예회복을 다짐한다.

EPGA 투어 정상급 선수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왕정훈이 우상이었던 우즈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왕정훈(왼쪽)은 내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의 에미리트골프클럽(파72·7328야드)에서 열리는 '오메가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총상금 265만 달러)에 출전. 어릴적 자신의 우상이었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오른쪽)를 만난다.

우즈는 2006년과 2008년 이 대회 우승을 비롯해 7차례 출전해 '볼5에 5차례나 들었다. 한 번도 컷 탈락한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28번의 라운드를 치르는 동안 3번을 제외하고 모두 언더파 스코어를 적어냈다.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다.

세계랭킹 2위 로리 맥길로이(북아일랜드)와 유럽 투어 강자 헨릭 스텐손(스웨덴), 지난해 이 대회 우승 이후 마스터스에서 그린 자켓을 입은 대니 윌렛(잉글랜드) 등도 출전한다. 이 대회는 1989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9회째를 맞는다. 어니 엘스(남아프리카)가 3승(1994, 2002, 2005년)으로 최다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맥길로이는 우즈와 함께 2승(2009, 2015년)을 차지했다. 역대 12개 나라에서 총 22명의 우승자를 배출했을 정도로 절대 강자가 없는 대회다. 이수민(24·CJ오쇼핑)과 베테랑 양용은(45)도 깜짝 우승에 도전한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 새 주장에 신형민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새로운 주장과 부주장을 선임했다.

주장에는 2014년 전북에 입단해 그해 K리그 클래식 우승을 이끈 신형민(30)을, 부주장에는 최철순(29)을 선임했다.

전북은 신형민이 전북의 베테랑 선수들과 신예 선수들의 조화를 잘 이루어 낼 것으로 판단했다.

부주장은 전북의 원 클럽맨 최철순이 선임됐다. 2006년 전북에 입단한 최철순은 12년째 전북에 몸 담으며 팀의 헌신적인 선수로서 활약을 했다.

올 시즌에는 주장 신형민과 함께 선수단의 팀워크 조성에 적극 임한다.

최강의 감독은 "이번 주장 선임을 하는데 있어서 이전의 전임 주장들의 조언을 가장 크게 받아 들었다. 전북의 주장을 맡았던 이동국과 조성환 선수가 신형민의 주장 선임에 있어서 적극 동의를 했다. 팀의 기풍으로서 큰 역할을 잘 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며 전했다.

새로운 주장 신형민은 "전북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북인의 문화를 만들고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만큼 최고의 팀 워크를 만들어 가겠다"며 말했다.

신임 주장 신형민은 31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와의 올 시즌 첫 연습경기에서 전북의 주장으로서의 데뷔전을 치른다.

/김민근기자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새해 결경사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새해에도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육상부(감독 이주형)는 1월 22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동계전지훈련 중 현지에서 개최된 제11회 전국실업육상경기연맹 크로스컨트리대회에 참가한 가운데 이혜민 선수가 창던지기종목에서 1위에 오르고 울해 입단한 정다운 선수는 해머던지기종목에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펜싱부 김지연 황선아 선수는 1월 27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월드컵 펜싱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단체전 2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김지연 선수가 개인전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녹슬지 않는 세계강국으로서의 실력을 과시했다.

이와 함께 2월 1일에는 이수근 펜싱코치가 감독에 승진 발탁되어 선수단 전체 사기진작은 물론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수근 감독은 작년 10월부터 감독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선수단 지도 및 대한펜싱협회 전라북도펜싱협회에서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왔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2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2위를 하였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체전 사브르종목 3연패를 달성했다. 2001년 부산 암문중학교 코치로 부임하여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였고 익산시에는 2007년도에 입단하여 선수 발굴과 지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우수한 성적으로 선수단을 이끌어온 이수근 감독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사랑을 받는 전북의 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영원기자

문체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향상지원단 출범

국가대표 훈련비 등 특별 예산으로 작년 274억원 지원 올해는 총 337억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동계종목 단체, 강원도 평창조직위 등 민관이 참여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향상지원단을 출범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1차 회의는 1일에 열린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은 7종목 13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메달 20개 획득, 종합순위 4위 달성이 목표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훈련비 등 평창동계올림픽 특별 예산으로 2016년 274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총 3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종목별 전담팀(장비·기술·물리치료 등 14억4000만원) 운영 ▲해외전지훈련 확대(32억3000만원) ▲외국인 코치 영입(7종목 18명) 및 동계 장비 지원(32억원) 등이 포함된다.

또 국내에 부족한 동계스포츠전문가를 배출해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동계종목 대외협력관을 운영한다.

동계종목 대외협력관은 종목별 경기규정 숙지 교육, 현장에서의 오심 대처 등을 통해 대표선수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스케이트 장비 담당 스키 확성 전문가, 빙질 관리 전문가 등 해외 최정상 전문 인력을 영입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선진국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올해 초부터 강릉스피드경기장, 강릉 아이스 아레나,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등 6개의 올림픽 경기장에서 직접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선수들이 사전 적응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향상지원단은 현

장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발굴해 종목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 이형호 체육정책실장, 이재근 대한체육회 선수촌장을 단장으로 매월 정기회의 개최와 함께 선수와 지도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는 지원단회의에서 나온 종목별 경기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예산 20억원을 별도로 마련해 내년 2월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문체부 유동훈 제차관은 "우리 선수들이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